

■ 박근종 칼럼

‘AI 고속도로’ 질주 가속 페달은 전력 확보·인재 육성·규제 완화



이재명 정부가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AI 고속도로’ 질주를 위해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페달(Pedal)을 밟고

있지만 AI 핵심 인프라(Infra)인 전력 확보·인재 육성·규제 완화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더딜 뿐만 아니라 난항을 겪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월 4일 2026년도 예산안을 설명하는 국회 본회의 시정연설에서 “인공지능(AI)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이라며 “산업화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달이 뒤처지고, 정보화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1년이 뒤처졌지만, AI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세대가 뒤처진다”며 AI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를 강조하고, “정부는 내년 총지출을 올해보다 8.1% 늘어난 728조 원으로 편성했다.”라면서 “AI·반도체·바이오 등 미래 성장동력에 전략적으로 투자하면서 재정지출의 지속가능성도 함께 고려했다.”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의 고속도로를 깔고, 김대중 대통령이 정보화의 고속도로를 낸 것처럼 이제는 ‘AI 시대’의 고속도로를 구축해 도약과 성장의 미래를 열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의 핵심 방향으로 우선 AI 투자 확대를 첫 번째 과제로 꼽으며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총 10조 1,000억 원을 편성했다.”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산업·생활·공공 전 분야 AI 도입에 2조 6,000억 원을, 인재 양성과 인프라 구축에 7조 5,000억 원을 투입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AI 고급인재 1만 1,000명을 양성하고, 고성능 GPU 1만 5,000장을 추가 확보해 정부 목표인 3만 5,000장을 조기에 달성하겠다.”라며 “로봇·자동차·조선·반도체 등 주력 산업의 AI 대전환을 위해 향후 5년간 약 6조 원을 투입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별 피지컬 AI 거점을 조성하고, 공공 분야 AI 도입도 확대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내 최대 부동산 대체 투자용 용사인 ‘이지스자산운용’이 지난 12월 2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국내외 주요 기관투자자(LP) 100여 명을 초청해 ‘디지털 인프라 IR Day’를 개최하고 ‘AI 시대’ 디지털 인프라 투자의 핵심 기준으로 ‘전력 접근성’을 제시했다. 수도권 전력난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전력 인프라를 확보한 부지의 희소 가치가 새로운 투자 기회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번 행사는 ‘생성형 AIGenerative

AI’ 시대의 도래가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구조적 변화를 진단하고, 이에 대응하는 이지스자산운용의 선제적 투자 로드맵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조연설에 나선 이철승 이지스자산운용 리얼에셋부문 대표는 “우리는 AI와 디지털 인프라라는 지난 100년간 가장 큰 ‘펀더멘털(Fundamental | 기초체력)’ 변화의 초입에 서 있다.”라며 “투자의 거대한 재편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펀더멘털의 최상위는 전력(Power)과 데이터, 네트워크이며 전력이 새로운 임지 기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먼저 최자령 전략리서치실장은 글로벌 자본의 흐름을 분석하며 “전 세계적으로 AI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한국 시장은 수도권 집중화와 전력 공급 병목으로 인해 공급자 우위 시장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만큼 전력 확보가 화급(火急)한 급선무(急先務)라는 방증(傍證)이 아닐 수 없다.

또한 국내 인공지능(AI) 전문 인력이 확대되고 있지만 인력 공급이나 임금 보상 등은 여전히 세계 주요국에 미치지 못해 공급 불균형이 심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지난 12월 5일 발표한 ‘AI 전문인력 현황과 수도권 불균형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국내 AI 기술 보유 인력은 약 5만 7,000명으로 지난 2010년보다 2배 넘게 늘었을 만큼 증가 속도도 빠른 편이다. 특히 AI 인력의 58%가 석·박사 학위 소지자일 정도로 고학력이고, 클라우즈(41%) 머신러닝(40%) 데이터(17%) 신호 처리(11%) 등 AI 중요 기술 인력 비중이 높다. 하지만 미국(78만 명), 영국(11만 명), 프랑스(7만 명), 캐나다(7만 명) 등 주요국에 비해 부족한 수준으로 집계됐다. 그런 데다 임금 보상 격차는 더욱 두드러졌다.

국내 AI 인력의 임금 프리미엄은 지난해 기준 6%로 미국(25%), 캐나다(18%), 영국(15%) 대비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한국은행은 국내 AI 인력의 임금 프리미엄이 주요국보다 낮은 배경으로 “연급 중심의 임금체계와 제한적인 보상 구조가 국제 인재 경쟁에서 한국의 약점을 키우고 있다.”라고 분석했다. 반면 해외 인력 유출은 늘어나고 있는 모양새다. 지난해 한국인 AI 인력 중 약 1만 1,000명이 해외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이중 해외 이직률도 14%로 다른 직군보다 0.6%포인트 높았다. 한국인 AI 인력의 해외 근무지는 미국이 6,300명으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한국은행은 낮은 보상이 해외 이동성 증가로 연결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국 AI 인력의 평균 연봉은 6,000만~1억 2,000만 원 정도인데, 미국은 2억~3억 3,000만 원에 달한다. 특히 미국은 신입 박사급도 초임이 4억 원 내외에서 시작하며, 최고급 인재는 수십억 원을 받는다. 반면 한국은 최고급 인재

라도 임원급 이상 연봉을 받는 경우는 드물다. 해외 유명 대학교 교수나 글로벌 빅테크 출신을 영입할 때도 10억 원을 넘는 경우는 손에 꼽을 정도다. 우수 인재일수록 해외 진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정부는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을 목표로 파격적 보상이 이뤄질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최고급 인재를 지키기에는 한참 모자란다는 지적이다. 기업에서는 최고 인재 유지를 위해 연공서열을 과감히 폐기하고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개편을 서둘러야 시행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인력 양적 확대 정책보다는 질적 고도화와 인재 유출 방지를 위한 세제 등 각종 지원을 포함한 인재 육성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한편 국내 데이터센터는 2024년 기준 165곳으로 미국(6,427개)은 물론이고 독일(529개), 중국(449개), 일본(222개)에 비해 크게 부족하다. 이대로라면 AI 생태계를 주도하기 위한 글로벌 각축전에서 낙오될 것은 명약관화(明若觀火)해 보인다. 경기 용인시 기흥구에 들어서는 데이터센터는 지난해 7월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했지만, 아직도 재심의가 기다리는 처지다. 지방자치단체의 몽니와 낡은 규제 등에 발목이 잡혀 건립부터 난항을 겪고 있어서는. 지자체 인허가를 받는 데만 1년 반 이상이 걸릴 정도로 더디다. 반대 주민을 설득하고 협의체 등을 꾸리느라 1년 5개월 넘게 인허가를 받지 못한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첨단 데이터센터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 기존 ‘건축법’과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각종 규정을 따라야 하다 보니 인허가가 지연되는 사례도 비일비재(非一再)하다. 수도권외 한 데이터센터는 주차장 부지확보 문제로 인허가에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

데이터센터는 상주 인력이 적고 방문객이 없는데도 시설면적 400㎡당 주차장 1대 설치를 의무화한 ‘주차장법’을 따라야 하는 탓이다. 인허가 이후에도 전자파와 정전 등을 우려한 지역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진통을 겪는 데이터센터가 수도적이다. 지난해 기준 수도권에서 건설 인허가를 받은 데이터센터 33곳 중 절반 이상이 공사에 차질을 빚고 있다. 표심을 의식한 지방자치단체들은 반대 주민들에게 편승해 사업에 제동을 걸고 있다. 정부는 데이터센터 건립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걷어내고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 지자체에만 맡기지 말고 합리적 인센티브를 마련해 지역사회 갈등을 중재하는 데도 적극 나서야 한다. 데이터센터 등 AI 인프라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해소할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데이터센터 건립에 시간을 허비할수록 ‘AI 3대 강국’은 요원할 뿐만 아니라 신기루에 그칠 가능성만 커진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간 ‘AI 3강’ 도약을

위한 글로벌 행보를 이어 왔다. 블랙록, 오픈AI, 엔비디아에 이르는 협력을 통해 AI 생태계 전반의 역량을 강화해 왔다. 이번엔 일본과도 인공지능(AI) 협력의 물꼬를 텄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월 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일본 소프트뱅크 그룹 손정의 회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한일 간 AI 분야 협력이 중요하다.”라며 손정의 회장의 가교역할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손정의 회장은 인간 두뇌보다 1만 배 뛰어난 ‘초인공지능(ASI | Artificial Super Intelligence)’을 “다음번으로 임박한 기술”로 소개하면서 이에 대한 준비를 이 대통령에게 제안했다. 특히 “ASI 구현을 위해서는 막대한 데이터센터가 필요하고 이를 뒷받침할 에너지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과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부작용으로 전력 확충에 차질을 빚은 우리에게 빼어난 지적이 아닐 수 없다.

최태원(SK그룹 회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지난 12월 5일 열린 대한상의-한국은행 공동 세미나에서 “한국이 현재의 글로벌 AI 경쟁에 제대로 뛰어 들려면 7년 안에 20GW(기가와트) 규모의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기조연설자로 나선 LG 이흥락 AI 연구원장은 기업 내부 AI 전문인력 육성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한국은행 연구팀은 AI 인력에 대한 국내 임금 프리미엄이 다른 주요국보다 낮아 인재 해외 유출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을 발표했다. 대한상의는 AI 기본법을 비롯한 현행 규제 체제가 AI 도입을 통한 잠재성장을 상상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과감한 규제 완화를 요구했다.

정부는 일본의 손정의 회장과 우리 경제계가 전하는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허투루 듣지 말고 받아들이며 정책으로 실천해야 한다. 무엇보다 AI의 두뇌인 반도체를 제조하고 운용하는 데 필수불가결(必修不可缺)한 전력을 충분히 확보해야만 한다. 신규 원전 건설을 비롯한 전력 인프라 증설을 빨리 결정하는 게 전력 확충의 지름길이자 첩경이다. 인재 육성도 시급하기는 마찬가지다. 더 열심히 일하고 뛰어난 성과를 보이는 AI 인력들이 기업에서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만 한다. 이는 주 52시간 근무제 및 경직적 임금체계처럼 획일적 노동 규제와 시장 환경을 과감히 혁파하고 개선해야만 가능하다. 막대한 AI 개발 자금을 민간에서 조달할 수 있도록 금산분리(金産分離 | 은행이 산업 자본을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화두로 떠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세운 ‘AI 3대 강국’ 비전은 이런 방안들이 복합적으로 잘 조합되어 뒷받침되어야 실현될 수 있음을 각별 유념해야 한다.

작가·칼럼니스트(현, 성북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 | 전, 서울특별시자치구공단이사장협의회 회장·전, 소방준감)

내년 초 인천 제3연륙교 개통 맞춰 영종도 교통 인프라 확충

영종도~서구 시내버스 2개 노선 신설...공항리무진 도입도 추진



인천 제3연륙교가 내년 1월 5일 개통함에 따라 영종도의 대중교통 인프라가 확충된다.

인천시 중구는 제3연륙교 개통일에 맞춰 시내버스 2개 노선이 신설된다고 14일 밝혔다.

신설 노선은 281번(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청라~석남동)과 282번(영종하늘도시~청라~신현동)으로, 두 노선 모두 제3연륙교를 경유한다. 현재 영종대교를 경유해 운행 중인 시내버스 3개 노선(202번·306번·307번)까지 포함하면 영종도와 서구를 잇는 시내버스 노선은 모두 5개로 늘어난다.

중구는 영종하늘도시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기존 306번과 307번 시내버스가 제3연륙교를 경유하도록 노선 조정을 시에 요청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중구와 협의해 제3연륙교 진입 전인 중산동 해천나래사거리 인근에 새 버스 정류

장을 만든다.

중구는 이곳을 향후 환승 정류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서울·경기 지역과 인천국제공항을 오가는 공항리무진 도입도 추진할 계획이다.

중구 관계자는 “제3연륙교가 개통하면 영종도의 교통체계가 크게 변할 것으로 예상되며 관계기관과 협의해 신규 노선 확보 등 교통 편의 개선 방안을 지속해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에 이어 영종도와 육지를 연결하는 세 번째 해상교량인 제3연륙교는 총사업비 7천709억원을 투입해 길이 4.68km, 폭 30m(양복 6차로) 규모로 건립되며 막바지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중구는 지난날 인천시 지방위원회가 결정한 ‘청라하늘대교’ 명칭에 불복해 국가지명위원회에 재심의를 청구하기로 해 제3연륙교는 일단 이름 없이 개통하게 됐다.

조수미·금난새 콘서트, 대니 구 제야음악회



공연은 디토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르로이 앤더슨의 ‘크리스마스 페스티발’을 시작으로 조수미가 부르는 아돌프 아담의 ‘오, 홀리 나이트(Oh, Holy Night)’와 어빙 벌린의 ‘화이트 크리스마스’ 등으로 이어지며 가요·팝·오페라를 아우른다.

조수미가 신뢰하는 젊은 음악가들도 함께한다. 캐나다 국립예술센터 오케스트라 상임지휘자 헨리 케네디가 지휘를 맡고 JTBC 예능 ‘팬텀싱어’로 이름을 알린 베이스바리톤 길병민이 비제의 오페라 ‘카르멘’ 중 투우사의 노래 등을 부른다.

클래식 성악을 기반으로 장르를 넘나드는 크로스오버 아티스트 박현수는 유재하의 ‘사랑하기 때문에’ 등을 들려준다.

지휘자 금난새도 조수미, 지휘자 금난새 등이 크리스마스 콘서트를 열고 예술의전당과 국립창극단은 송년 음악회로 한 해를 마무리한다.

온 가족이 즐길 뮤지컬과 무용극도 열린다. 조수미는 성탄절 당일인 오는 25일 서울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크리스마스 콘서트 ‘마이 시크릿 크리스마스(My Secret Christmas)’를 개최한다.

21일 강릉아트센터, 23일 의성문화회관, 24일 평택아트센터 등으로 이어진 투어의 일환으로서 조수미가 주도한 기획으로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전한다. 금난새가 이끄는 뉴월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연주한다.

서울시민, 전국 평균 대비 20% 더 걸어 '손목닥터9988'이 변화시킨 '건강도시' 일상

손목닥터9988 서비스 시작후 걷기와 건강생활실천 모두 매년 최대치 기록갱신

260만 서울시민 참여 '손목닥터9988' 주요역할...참여자 260만명 1일 평균 8,692보

올해 서울시민의 ‘걷기실천율’은 69.0%로 전국 1위를 차지했다. 금연·절주·걷기 모든 부분을 포함하는 ‘건강생활실천율’ 또한 54.3%로 전국 최고였다. 두 데이터 모두 손목닥터9988이 출현한 2021년 이후 매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건강습관을 길러주는 ‘손목닥터9988’을 핵심으로 ‘더 건강한 서울 9988’의 비전 달성에 한 발짝 더 가까워졌다는 분석이다.

서울시는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KCHS)’ 결과 서울시의 ‘걷기 실천율’은 전국 평균(49.2%) 대비 20%p가량 높았으며, 건강실천율 또한 전국 평균 36.1%보다 18%p 가량 높았다고 밝혔다.

올해 1위를 차지한 ‘걷기 실천율’은 최근 일주일 동안 한 번에 최소 10분 이상, 하루 총 30분 이상, 주 5일 이상 실천한 비율을 의미한다. 올해는 2021년



(55.5%)보다 13.5%p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

서울시민의 걷기 실천율은 ▲'21년 55.0% ▲'22년 62.3% ▲'23년 64.3% ▲

'24년 68.0% ▲'25년 69.0%로 매년 증가세다.

‘건강생활실천율(54.3%)’ 또한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달성률을 보였다. ‘건강생활실천율’은 금연·절주·걷기 모두 실천한 비율이다.

서울시민의 건강생활 실천율은 ▲'21년 43.3% ▲'22년 47.7% ▲'23년 48.4% ▲'24년 52.4% ▲'25년 54.3%로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다.

시는 이번 발표와 관련해 매년 증가세를 보이는 걷기·건강생활실천율 등이 2021년 11월 서비스를 시작한 현재는 260만 서울시민이 이용 중인 스마트 건강관리앱 ‘손목닥터9988’의 영향이 컸다고 분석하고 있다.

‘손목닥터9988’은 '99세까지 88(팔팔)하계’의 의미를 담은 사업으로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건강 습관을 형성하도록 설계된 실천형 프로그램

이다.

만 18세 이상 서울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하루 8,000보(70세 이상 5,000보) 목표 달성 시 포인트를 지급하는데 포인트는 서울페이로 전환해 편의점·식당·약국 등 28만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주 3회 이상 지속적으로 걷기 목표를 달성한 적극 참여군의 의료비가 일반 참여군 대비 약 27만원 더 증가한다는 조사 결과도 있었다.

시는 이러한 건강변화를 반영해 더 많은 시민이 더 건강한 일상을 보내도록 지난 1일부터 ‘손목닥터9988 슈퍼앱’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가동 중이다.

이동통신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더 건강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서울시는 손목닥터9988을 중심으로 생활 속 걷기 운동뿐만 아니라, 근력운동 등 맞춤형 건강 정책을 강화하며 시민의 건강실천 생태계를 확장하고 있다”며 “모든 시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건강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장성 기자

	www.thesegeye.com 7페이지: news@thesegeye.com
● 회장 이채봉 ● 발행인 심귀영 ● 편집인 이채봉 ● 편집국장 이상성 ● 마케팅본부장 이현진 ● 인쇄인 디엠코리아(주)	
● 편집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로 62길 1 3층 (남신빌딩)	
편집국/기사제보: 1661-8385 광고국: 02)717-7272 FAX: 02)717-7273	등록: 2007년 3월 22일 창간:4월23일 등록번호: 서울 가 50106 구독료: 한달 15,000원 한부10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